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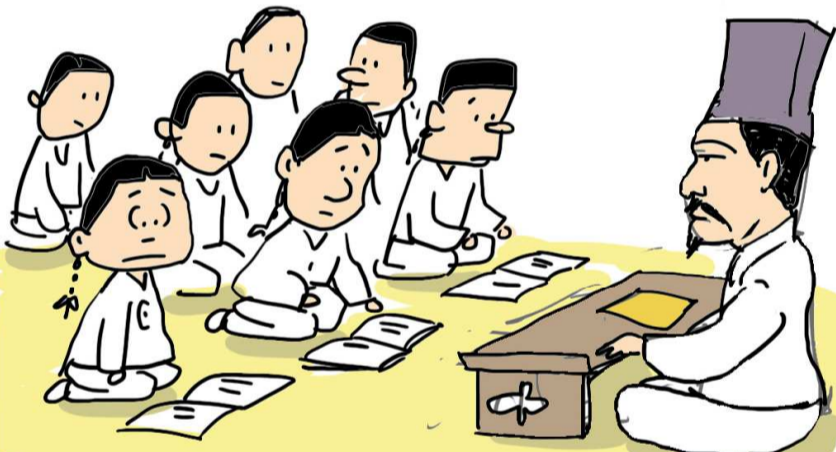
2. 할아버지의 지조와 절개



(노송정 사진)



1453년, 할아버지 노송정 이계양이 진사시험에 합격 후에 봉화 훈도를 맡고 있었다.



그해 10월 계유정난이 일어나니 어린 왕 단종은 고작 1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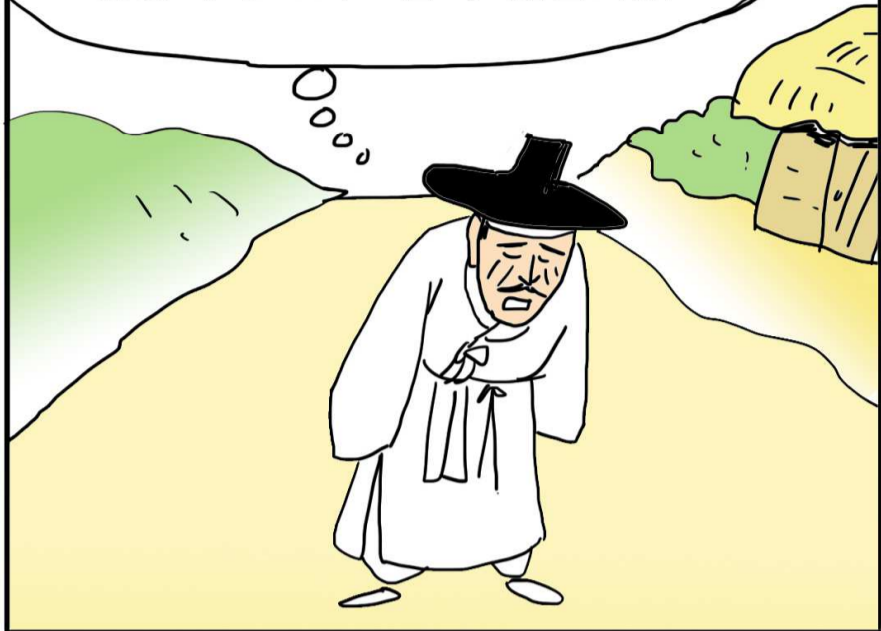
계유정난이란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 인 등을 제거하고 왕권을 잡은 사건을 말한다.



할아버지 이계양이 갈등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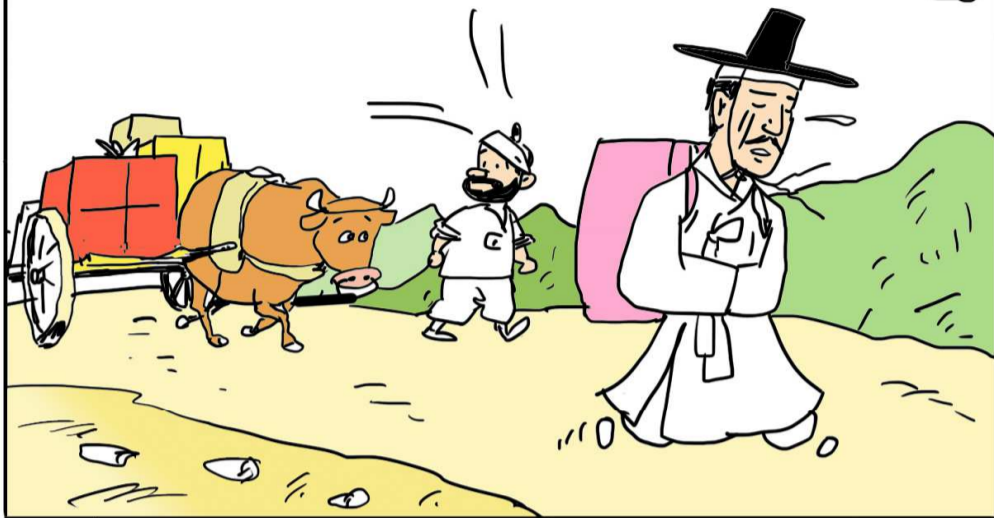


그런데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는
인륜이 무너진 세상에 어찌 나라에
충성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가...



이계양은 관직을
그만두고

의롭게 살아도
짧은 인생이다...



예안(지금의 도산 온혜)으로 집을
옮긴다.



이곳에 집을 짓고 아버지가 주신 뚝향나무를
한 그루 심고 노송정이라 이름했다.

유일한 친구로다.
잘 자라다오.



단종이 영월로 유배 당했다는 풍문이
들리더니...

그냥 두진
않을 텐데...



곧이어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들린다.

내 이럴 줄
알았다만
눈물은 왜
나는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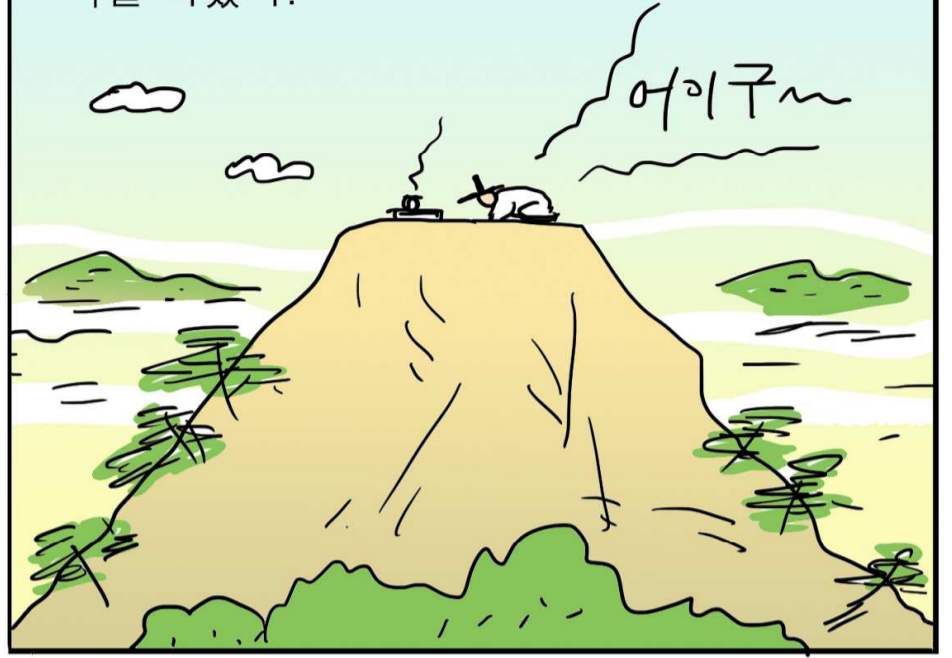


성왕이셨던 세종 임금을 생각하면
세상 일이 덧없었다.

충신은 불사이군이라
하였지.



이계양은 매월 초하루가 되면 국망봉 꼭대기에
올라 단종이 죽은 영월을 향해 절을 올리고
곡을 하였다.



90이 가까운 할머니는 어린 퇴계에게
항상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희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단다.

아~~



할아버지...



노송정 이계양이 아버지
이정의 집에서 분가할 때
가져와 노송정 앞에 심은
뚝향나무의 후손

